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2026 전남도 우수건축물’ 대상

전남광주시, ‘우수건축물’ 4곳 선정
역사성·조화 호평...최우수 ‘포레스트’
여수 여운항·담양 지곡당 ‘우수’ 수상
내년부터 전남·광주 통합 시상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건축에 녹여낸 우수건축물 4곳을 선정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사진)을 비롯해 포레스트, 여운항, 지곡당이 올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건축물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역 건축문화 발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2026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나주시 공산면에 들어선 ‘남도의병 역

사박물관’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구례 ‘포레스트’, 우수상에는 여수 ‘여운항’과 담양 ‘지곡당’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 7~8월 모두 14개 작품이 접수됐다. 건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

원회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디자인과 기능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상작인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남도 의병의 역사와 정신을 건축공간에 담아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변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이 간직한 역사적 가치를 공간 구성에 구현했다는 평가다.

최우수상을 받은 구례 포레스트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돋보였다.

여수 여운항은 바닷가라는 입지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해안 조망을 공간에 담아내면서 주변 경관과 건축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설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담양 지곡당은 지역의 예술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쉼터로 조성된 점이 특징이다. 무등산 조망과 잔디 마당을 중심으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공간을 구성해 우수상에 선정됐다.

이번 우수건축물 선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뽑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정체성을 건축을 통해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선정된 우수건축물에 기념 동판을 부착하고, 설계와 시공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건축문화제’에서 특별 전시를 열어 시민들에게 우수 건축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공모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기존 ‘전라남도 우수건축물’과 ‘광주건축상’을 통합해 하나의 우수건축물 선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통해 광주와 전남의 건축문화 자원을 함께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담은 건축물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임진출 전남광주특별시 건축개발과장은 “앞으로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AI 활용 ‘수돗물 민원 해결사’ 서비스

전남광주 상수도본부 수질연구소 개발
12가지 주요 해결책·담당부서 등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는 6일 “시민들이 수돗물 이용 중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우리집 수돗물 민원 해결사’를 자체 개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우리집 수돗물 민원 해결사’는 필터 변색, 이물질 발생, 소독약 냄새, 흙탕물, 청록현상, 백수 현상, 요금 문의 등 시민들이 자주 겪는 12가지 수돗물 관련 현상들을 유형별로 안내하는 서비스다.

시민이 해당 현상을 선택하면 주요 발생 원인과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한다.

그동안 소독약 냄새나 필터 변색 등 수돗물에 이상이 생겨도 정확한 원인이나 담당 부서를 찾기 어려워 여러 부서로 중복 문의하는 불편이 잦았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 불편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물론 담당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안내 업무 효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가정 내 1차 조치 후에도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이상 현상과 거주 지역에 따른 담당 부서와 직통 연락처를 바로 안내받을 수 있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수질연구소 문수진·류미금 주무관이 추가 예산이나 외부 개발 용역 없이 바이

브 코딩(AI)을 업무에 적용했다.

시민들이 자주 묻는 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우리집 수돗물 민원 해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전남광주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누리집 내 상수도수질·상수도참고·민원해결사 메뉴에서 시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시,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철은 어선어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김 양식시설 설치가 본격화되는 시기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특별시, 시·군 어업지도선 17척을 불법어업 우려가 높은 해역에 배치해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 불법조업,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조업 금지구역 침범,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변형어구 사용 등 어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다.

해양경찰서와 공조도 강화한다. 불법어업 우려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하고 지자체와 해경 간 공동 대응을 통해 불법 양식시설 설치 등을 단속한다.

/변은진 기자



전남대 용봉대동풍이 함께 즐겨요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용봉대동풍이 ‘錄stalgia(록스텔지아)’를 주제로 축제가 열려 방문객들이 체험부스에서 젓가 블록을 쌓으며 경쟁하고 있다. /조영권 기자

목포대 “교육부, 의대 신설 대학 직접 심사하라”

국립목포대학교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을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박시형 목포대 총장 직무대리는 6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시의 추천이 곧 의대 신설 대학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종 심사와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민행배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장의 국립순천대 추천 행위에 대해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별시장의 추천을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적 행위로 보고, 교육부 장관이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 등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신설 대학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순천대 추천의 적법성이나 특별시 평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목포대는 이에 따라 교육부가 특별시의 평가

·추천 결과를 단순히 승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직접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서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부지 15만1천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의 검증을 요구했다.

목포대는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협약서에는 의대 유치 확정 시 해당 부지를 무상 임대·사용·대부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추진계획서와 실제 법적 권원의 일치 여부와 교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나이 든다는 이유로 '외로워'져야 할까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곁을 지켜드릴 때입니다. 노인의 날,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월 2만원

< 혼자가 아닌 하루 선물하기

후원문의 1811-1004

ARS 무기명후원 060-708-1004 (1만원)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사)한국나눔연맹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34년간 정부지원 없이 나눔활동